

# 소년과 책, 재벌과 도서관

호영송

책세상 주간

① 그는 집으로 돌아오면서 머릿속으로 자기의 돈을 계산해 보았다. 책을 한권 살 수 있을까? 책을 갖는다는 것을 멋진 일일 거야. 그는 한편 뿐만 아니라 많은 책을 읽고 싶었다.

② “건물 안에서 도서실만큼 훌륭한 곳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대답했다.…… 언젠가는 나도 반드시 이렇게 훌륭한 도서실을 갖자. 그는 자신에게 이렇게 말했다.

③ 그가 처음으로 기부한 공공도서관은 자기가 태어난 고향의 도서관이었다.…… 고향에 세운 도서관의 감동적인 기공식에 참석하고 스코틀랜드에서 귀국한 그는 피츠버그에 도서관을 기증

하고 싶다고 생각 했다.

위의 글 1, 2, 3에 나오는 그는 누구일까? 독자들에게서는 그가 이미 한국인중의 누구는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됐을 것이다.

그는 미국에 2천8백11개의 도서관을 세웠다. 다른 영어사용국에도 3백개의 도서관을 세워 그 범위는 영국에서 남태평양의 피지 군도에까지 이르렀다. 그는 부(재화)의 사용법에 관해 많은 글을 썼다.

이제는 ‘그’의 이름을 밝혀두자.—그는 강철왕이라고 불리는 안드류 카네기(1835~1919), 바로

그이다.

최근의 신문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국민당 개인 소득 5천달러에, 세계 열번째 무역고를 이룩했으며, 후진국 여러나라가 우리의 경제성장정책을 배우고 있다고 한다.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세계에 이름난 대재벌과 의욕적인 기업가들이 많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우리나라에 안드류 카네기 같은 사람이 있다는 말을 듣지 못했다. 어려서 가난했기에 학교공부도 제대로 못하고 책 한권 사볼 수 없었던 소년. 도서관조차 제대로 이용하기 어려웠던 소년 카네기. 그는 재벌로 성공한 뒤, 도서관 지어 사회에 바치는 일에 기여이 큰 재산을 썼다. 우리나라의 시골 여러 고장에 그 고장 출신의 재벌이 도서관 하나씩만 기증해도 그게 얼마나 신나는 일일까. 이게 그저 한 백면서생의 단순한 ‘희망사항’일까?

# 출판저널

통권 제65호/1990년 7월 5일 발행

발행인—鄭鎮肅  
편집인—李起雄  
인쇄인—李奎秀  
편집부장—康鐵柱  
기자—李權雨 鄭素淵 崔兌源 鄭蕙玉 朴南貞  
디자인—尹貞子  
사진—全惠敬

업무차장—尹東鎬  
업무·광고—李峯天 崔炳天 金允淳 金依姬

등록 1987년 6월 9일—다 435  
대체구좌 010041-31-2826477  
발행처—(재) 한국출판금고  
인쇄처—평화당인쇄주식회사  
전산사식—광일사전산사자

출판저널—110-190 서울 종로구 사간동 105-2 출판문화회관 2층  
전화 732-1431~3

「출판저널」은 신문윤리강령 및 주간신문윤리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출판저널」편집서평위원

康賢斗 康泓彬 權德周 權孝瑛  
權五聖 金炳翼 金聖坤 金容雲  
金禹昌 金仁會 金治洙 盧命完  
潘星完 邊衡尹 徐洪善 徐淵昊  
成完慶 宋相庸 愼鍾廈 安秉永  
安輝潯 吳光洙 劉載天 陸明心  
尹錫範 李康洙 李康淑 李瑋蕙  
李光周 李萬烈 李明賢 李相日  
李勝羽 李元靛 李重漢 李姬載  
張會翼 鄭用琢 鄭雲暎 鄭鎮弘  
鄭丙圭 曹大鉉 趙玉羅 陳德奎  
車河淳 崔成眞 崔元植 崔載賢  
崔鐘庫 韓相震 韓勝憲(가나다 순)

## 「출판저널」정기구독안내

매월 5일·20일자로 발행되는 주간 「출판저널」의 정기구독제도를 안내합니다.  
\* 본사의 지로용지로 10,000원(10호분) 또는 18,000원(20호분)을 송금하시면 입금된 날짜의 해당호부터 우송해 드립니다. 정기구독예약은 10호분 또는 20호분 단위로 신청을 받습니다.  
\* 본사의 지로 용지가 없으신 분은 전국 각 은행(농협 수협 축협 포함)의 A지로 용지에 본사 지로번호 3008669와 금액, 주소, 성명을 명기, 불입하거나 또는 우체국 대체구좌 010041-31-2826477을 이용하십시오.

## 독자서평을 모집합니다

본지는 서평의 활성화에 보탬이 되도록, 독자들이 참여하는 「독자서평」란을 두기로 했습니다. 신간중에서 감명깊게 읽은 책, 값지다고 생각되는 책을 서평의 형식으로 소개하는 글이 되겠습니다.  
원고분량은 책명과 저·역자명을 포함하여 2백자 원고지 7매 내외, 투고하시는 분의 주소·성명·직업 등을 첨가하여 본사 「독자서평담당자」 앞으로 우송해 주십시오. 투고된 원고는 소정의 심사를 거쳐 본지에 게재합니다. 수록된 서평에 대해서는 게재지와 소정의 원고료를 드리겠습니다.

공급: 한국출판협동조합

서울 마포구 신수동 448-6  
716-5616~9, 716-5621~3

# 독서퀴즈

다음 문제의 정답을 7월 25일까지 「출판저널」 독서퀴즈 담당자(110~190·서울 종로구 사간동 105-2 출판회관)으로 보내주십시오. 보내실 때는 문제가 실린 「출판저널」호수를 명기하시고, 우편엽서를 사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답은 「출판저널」 제67호(8월5일자)에 발표됩니다. 정답을 모두 맞힌 독자중 5명을 추첨, 금성교과서(주)에서 펴낸 「뉴에이스英韓辭典」(정가 10,000원)을 상품으로 드립니다.



### 문제1

다음 시조는 이백의 「장진주」에서 그 시적 발상을 차용해온 작품으로 제목은 「장진주사」입니다. 이 작품의 작가는 누구이겠습니까?

“한잔 먹세 그려 또 한잔 먹세 그려 꽃 꺾어 산 놓고 무진무진 먹세 그려 / 이 몸 죽은 후면 지게 위에

거적 덮어 주리혀 메여가나 유소보 장의 만인이 울어어나 어옥새 속새 답가나모 백양 속에 가기곳 가면 누른 해 흰 달 가는 비 굵은 눈 소소리바람 불 제 누 한잔 먹자 할고 / 하물며 무덤 우헤 잔나비 파람 불제 야 누운친들 어찌리.”

- ① 정철
- ② 박인로
- ③ 윤선도
- ④ 김천택

### 문제2

중국에 ‘당송팔대가’가 있듯이, 한국한문학사상 조선중기의 걸출한 시인들로 ‘삼당시인’이라 하여 세 시인을 꼽습니다. 이른바 ‘상월계택’의 前四家가 文에 승한 반면 이 삼당시인은 모두 詩가 뛰어난 것으로 좋은 비교가 됩니다. 다음 중 삼당시인에 속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이겠습니까?

- ① 백광훈
- ② 권필
- ③ 최경창
- ④ 이달

### 문제3

윤선도의 「어부사시사」는 그가 은거해 살던 보길도의 풍광을 노래한 연시조로서 각 계절당 10수씩

모두 40수로 구성돼 있습니다. 다음은 어느 계절의 정취를 읊은 것이겠습니까?

“곳은 비 몇어가고 시냇물이 맑아 온다 / 배떠라 배떠라 / 낮대를 두러메니 깊은 흥을 금 못한다 / 지국충 지국충 어사아 / 연강침장은 누라서 그려넌고”

- ① 봄
- ② 여름
- ③ 가을
- ④ 겨울

### 제63회 독서퀴즈 정답

「독서퀴즈」에 응답해주신 독자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63호(6월5일자) 퀴즈에 응답해온 엽서는 모두 36통, 이중 정답자는 13통이었습니다.

당첨자 중 서울에 계신 분은 도장과 주민등록증을 지참하고 발표일자로부터 한달 이내에 「출판저널」 편집실로 직접 오셔서 상품을 받아가십시오. 지방에 계신 분께는 우송해 드립니다.

### 문제1

② 한우

### 문제2

### ③ 최경창

### 문제3

① 매창

### 당첨자

노수(서울시 서대문구 창천동 43 4 18동 2번)

황성숙(경남 창원시 소계동 700-34)

김지숙(서울시 성동구 성수1가 656-65번지)

태기영(충북 청주시 서운동 78-1 거북당내)

조성진(충남 태안군 소이면 만리포 고등학교)